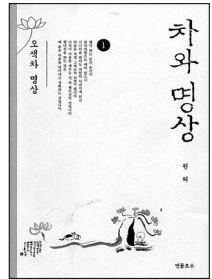


# 차의 다섯 색채 방편... 마음 본성 깨달아



**차와 명상**  
원허 스님 지음  
연꽃출판사 펴냄  
2만원

우리의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인드라망으로 얽혀져 있다. 그 속에서 즐거움, 고통, 탐욕, 성냄, 사랑, 미움 등 다양한 감정을 체험한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우선 만남과 헤어짐의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나'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와 '남'의 관계란 무엇인지, 삶 자체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을 말이다.

최근 <차와 명상>을 펴낸 원허 스님(前승광사 및 동화사 강주)은 이 책에서 "인연의 관계를 꿰뚫어 아는 법이 바로 명상이며 수행이지만,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차 한 잔 마심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차명상이며, 또한 자비다선"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스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연흐름의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놓치지 않게 되며,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이 줄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명상이요 수행"이라고 덧붙인다.

즉 명상은 온전한 나를 만나 나를 알아가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고통을 없애거나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깨우며 마음의 힘을 키

운다는 의미다.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므로 알아차림을 통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흐름을 알게 된다면 이는 곧 모든 인간관계의 이치를 깨닫는 방법이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알아차림과 집중을 계속하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비울 것은 비우고 나눌 것은 나누게 되며 내려 놓을 것은 내려 놓게 되겠지요. 마음은 뇌의 물리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마음은 뇌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책에는 '오색차 명상'이란 부제가 붙었다. 색채를 이용해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게 오색차 명상의 핵심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또한 원허 스님은 행다선은 움직이는

## 자비다선, 계정해 갖춘 명상법

색채에 따라 심리변화되는 원리

차도구 없이도 상상으로 명상 가능

는 차례속에서 현재 이 순간으로 깨어나 지혜를 체득해 형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명상법이라고 덧붙인다.

"오색차 명상은 공성과 빛인 마음의 본성을 차의 다섯 색채를 방편으로 해서 깨치는데에 있으며,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마음의 현상임을 깨닫는데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몸과 심리치유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자비다선 명상은 유행을 따르거나 뿌리 없는 명상법이 아니라 계정해 삼학을 갖춘 명상법이며, 수행에 따라 체험



저자의 지도아래 오색차 명상을 하고 있다.

의 단계와 깨달음이 있는 명상법입니다."

자비다선 차명상의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몸과 심리 치유이며 둘째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단계, 마지막으로 셋째는 지각있는 존재인 유정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보리심을 일으키는 단계 등이다.

특히 저자는 오색차 명상 수행을 위해서는 색채(色)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색채를 단순히 표층적인 면만 보면 무심히 지나칠 수 있지만, 이것은 심층 심리적인 것이며, 근원적으로는

생명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색채는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상, 조화, 디자인, 건축 등 나아가 몸의 생리적인 현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색채에 따라 심리변화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오색차 명상이지요."

하지만 저자는 책에서 약용으로서의 차 마실 것과 차 수행의 차 마실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차 마실 때 치유 효과는 있겠지만, 지(止)와 관(觀) 수행이 병행될 때만 차 마심이 그대로 생명살림으로 된다고 조언한다. 즉 차를 마시는 행위와 맛에 대한 집중은 몸과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며 막힌 것을 소통시키므로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오색차 명상에 대한 팁도 하나 귀뜸한다. 이 명상은 차 도구 없이도 상상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미지 명상이다.

또한 책 말미에는 직접 수행에 참가한 이들의 상담치유와 체험 사례들이 후기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현장감을 더해 준다.

"파랑색 차잔과 색상을 떠올릴 때는 등에 바람이 일듯 시원한 느낌이 느껴졌고 그 느낌이 어깨와 팔에 느껴지는 듯해서 가벼웠다"(환희형) "얽히고 맺힌 마음을 풀게 됐다"(금강심) "오색차를 집중해 마시고 그 기운이 몸에서 뚝뚝 빠져나가는 명상만으로도 상신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았다"(삼매경)

한편 서울, 부산, 대구, 성주, 호주, 캐나다 등 국내외에 6개 선원을 운영하는 저자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서울 창경궁에서 경선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주일 기자 kimji217@thyunbul.com

# 불교의 오래된 사상서 첨단과학 이론과 유사한 사고 발견 정리

## 불교에서 본 우주

김승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불교를 통해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만일 불교와 현대천문학이 만난다면 어떤 까? 우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공간의 구조와 시간의 변천과정 등을 밝혀낼 수 있을까? 불교경전에는 이와 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수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 경전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전체를 조망하기 힘들다. 또한 현대과학은 확인 가능한 우주의 작은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깊은 선정 상태에서 초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관찰한 불교의 장엄한 우주관과 최첨단 기술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현대천문학이 만나는 회통의 지점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속살을 좀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 책은 지금껏 밝혀진 첨단과학의 우주론과 불교서 말하는 우주관을 상호 비교하면서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우주 본 모습을 조망하고자 시도한 독특한 저서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과학과 불교 분야의 다양한 책들을 광범위하게 참고해 광대한 우주의 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의 체계를 세워 정리했다. 이런 결과로 나온 이 책이 지닌 특징은 이렇다.

먼저, 불교와 천문학을 객관적 관찰자 입장에서 한꺼번에 놓고 멀리서 바라봤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쪽만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느 쪽에도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 전체를 천문학과 불교철학의 안목을 빌려 통섭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만일 현대천문학과 불교의 통섭적 만남으로 이뤄진 우주에 대한 설명이 정말 우주의 실제 모습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는 불교나 현대과학에 고무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둘째, 불교와 현대천문학을 연계시킨 점이다. 2500년 전 붓다가 고도의 정신적 경지에 도달한 우주가 오늘날 천문학의 우주관과 그 차이에 있어 상통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논했다. 이처럼 불교와 현대과학의 융합을 통해 우주를 설명하려 한 시도가 바로 이 책의 주안점이다.

다음으로, 저자 나름대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공간의 두께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해 복잡다단한 이론들을 논리화하고 체계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 성주괴공이나 연화장의 세계관을 현대과학의 입장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실과 더욱 부

합된다면 우주에 대한 더욱 깊은 안목과 새로운 탐구 방법의 지평을 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현대과학의 우주론을 빅뱅과 빅크런치, 은하와 블랙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제 2장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화엄경>과 <구사론>을 중심으로 성주괴공(成住壞空)의 4겁과 화장장엄 세계해와 세계종, 제3장에서는 불교와 현대과학의 근본적 차이점을 관점의 차이, 즉 육안과 심안의 차이라고 본다. 제 4장은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불교와 견해와 현대과학의 견해를 각각 소개하는데, 불교의 경우 성주괴공의 공과 수행에서의 공, 공과 12연기, 무명과 진여를 설명하면서 무명을 현대과학의 빅뱅과 비교한다. 현대과학의 경우에는 대표적 우주의 시원으로 설명되는 빅뱅과 이와 대조되는 정상우주론, 인플레이션 이론과 대칭성 붕괴 이론을 소개한다. 제 5장에서는 심안으로 바라본 화장장엄세계해와 삼천대천세계의 모습을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3,000억 개의 은하, 그리고 초점우주와 다중우주론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 6장 우주의 두께에서는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평행우주와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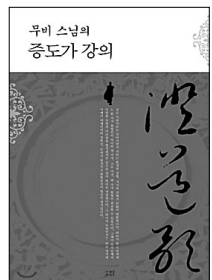
## 다수 문헌 통해 우주 진상 체계 정리

불교와 과학 융합 통해 우주 설명

다짐, 초 끈 이론 등의 이론과 공즉시색(空即是色) 색즉시공(色即空) 그리고 상인상즉(相人相即) 등을 각각 소개함으로써 우주 공간의 구조가 어떠한가에 접근하고자 했다. 제 7장 우주의 물질에서는 불교의 진여서 무명이 나온다는 견해로 현대과학 이론인 중성미자, 힉스입자, 반물질 등의 문제를, 제 8장 우주의 시종에서는 종말과 증감, 우주의 끝과 방위, 시간의 문제 등을 불교와 현대과학의 입장서 서로 조망했다. 마지막 개침에서는 우주의 시간적 변천과정인 성주괴공과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대조하면서 이를 조형해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행편이다. 그 과정에서 현대과학자들은 동양사상, 특히 불교사상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불교의 오래된 사상서 첨단과학의 이론과 놀랍도록 유사한 사고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외적 세계인 우주와 내적인 우리 마음과 인생의 문제를 통찰적으로 바라보고 반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듯하다.

김주일 기자

# 무비 스님의 언어로 만나는 선(禪) 지침서



**무비 스님의 증도가 강의**  
무비 스님 강설  
조계종출판사 펴냄  
2만원

증도가(證道歌)는 육조 혜능스님으로부터 인가 받은 뒤 큰 깨달음의 심경에서 그 요지를 읊은 선시이다. 원래 영가 스님은 당시 유행하던 천태종에 있었으나, 스스로 조계의 길을 깨친 후 선종으로 넘어왔다. 영가 스님과 육조 혜능대사의 만남은 유명하다.

영가 스님이 증도가를 지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영가 스님이 조계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하직을 고하자, 육

조스님께서 몸소 대중을 거느리고 전승하셨다고 한다. 그때, 영가 스님이 열 걸음쯤 걷다가 석장을 세 번 내려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계대사를 한 번 뵈고는 나고 죽고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노라!"라고.

## 영가 스님 육조로부터 인가 받아

그후 깨달음 심경서 요지 읊어

'인간불교' 관점서 무비 스님 해설

또한 영가 스님은 육조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곧 생각이 없는 것이고, 요달했다고 하는 것은 본래 더디고 빠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스

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이 없는 도리, 신속함이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알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자 육조 스님은 "그렇지, 그렇지"하며 인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가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한 데 모아 지은 <영가집> 증도가는 도를 닦는 이들에게 큰 지침이 됐고 선종을 대표하는 글이 되었다. 오도송이란 깨달음의 희열이 주체할 수 없어 터져 나온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가스님의 증도가는 그 깊이와 무게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유려한 문체로 진수를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평생의 지침서이며, 예로부터 많은 이들에게 독송되고 해설돼 왔다.

무비 스님은 우리 시대 최고의 대강백이

다. 또한 일찍이 수행을 통해 불교의 정수를 체험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사상을 정립하면서 '인간불교시대', 즉 '사람이 부처다'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원시불교, 소승불교, 비밀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등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 재해석되어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를 '인간불교시대'로 정의한 것이다. 무비 스님은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능력 그대로가 부처의 능력이라고 설파한다. 이는 빈부, 귀천, 남녀, 노소의 어떤 차별과 분별이 있을 수 없는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무비 스님의 증도가 강설은 바로 '인간불교시대'에 사람이 부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때문에 본 증도가 강의는 단순한 역학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다.

김주일 기자

##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강의

- 빙의환자는 천도재나 구병시식을 해도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퇴마 후 퇴마한 영가와 조상천도재를 해야 합니다.
- 이십여년간 연구하고 퇴마해 온 경험과 비법으로 오로지 제행스님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 상담에서 퇴마까지 실제로 사용한 강의로 배우면 누구나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제행스님 직접강의 및 퇴마, 사주, 작명, 예약상담과 출장퇴마 합니다.
  - ▷ 책 구입 : 농협 552-01-047918 비룡정사 (정가 13,000원)
- 참가비 : 200만원 (정원 5명 선착순. 통화 후 접수)
  - 특전(1) : 수강생 전원에게 1회씩 무료출장 퇴마해 줌으로 해서 배운 뒤로 하면 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겠습니다.
  - 특전(2) :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퇴마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개인지도 수시모집 : 퇴마 심리상담, 사주(기문둔갑), 작명)**

장 소 :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3-6번지 아크로타워 (주차가능)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전 화 : 011-772-4606 제행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복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전범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김홍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전범사

책 자 안 내

- 1 인간의 김홍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전범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